

군산사랑상품권 지류 판매 완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전국적 성공모델로 평가... 내년에도 발행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상품인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지류 판매를 완료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군산경제 회생의 기틀이 된 군산사랑상품권이 11월 판매를 마지막으로 2019년 발행액 4,000억원(지류3800억원, 모바일200억원) 중 지류상품권 3,800억원 전액이 판매 완료됐으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은 소진 시까지 12월에도 1인당 70만원까지 구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목표로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매월 상품권

을 사려는 시민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기존의 인터넷쇼핑, 홈쇼핑, 대형마트를 찾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소비 지각변동을 일으켰으며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골목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은 외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국적 성공모델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지난 22일에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 하나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 공무원들과 성공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에도 군산사랑상품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계획"이라며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모바일 상품권과 연계한 공공 배달앱 개발 및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전국 소상공인 BS(경기체감지수)가 평균 65점 정도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군산사랑

상품권 사업은 지역자금 역내순환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으로 상품권이 전액 소진되어 12월에는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경제 위기상황 돌파 및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목표로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9월 발행을 시작해 4개월만에 910억원을 전액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월 평균 350억원 가량 판매되고 있다.

이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상품권 유통 기반 조성에 만들어진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한돈 시식회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한돈 시식회

공무원들, 20% 할인 가격으로 약 175kg 구매

군산시는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한돈 시식회 행사를 개최했다.

26일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삼겹살, 목살 등 인기 부위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약 175kg를 구매했다.

또 시청, 수송동 청담빌딩 등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중에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절대 감염되지 않으며 국산 돼지는 매우 안전

하고 신선한 먹거리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해 양돈농가가 큰 위기에 처했다"면서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캠페인과 양돈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청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이번달 13일에 '군산지역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아동이 행복한 익산' 원탁토론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한 의견 수렴

익산시는 26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이라는 주제로 100인 원탁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초·중·고교 학생 70명, 학부모 20명, 아동관계자 10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아동친화지역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내부회의를 거쳐 관련 부서 및 관

계기관 등과 협의, 정책에 반영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초석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많은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관내 주요 건설 사업장 미세먼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 건설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와 미세먼지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추진배경으로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단계적인 저감 효과 증대로 시민의 건강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군산시 관내 건설공사장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한 사업장 중 규모가 큰 건설업 특별 관리사업장으로 현대산업개발(주), 롯데건설(주), 지에스건설(주) 등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군산시와 협약 참여 사업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대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은 인근도로 살수차 확대 청소 운영과 비산먼지 발생 작업의 중지 등 억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군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범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주) 김명준 현장소장은 "자체 만들어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계 수립 가동 및 직원교육, 역제 시설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문체부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선정

KTX 익산역사 내 설치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 전북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돼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도서관에 따르면 U-도서관 구축사업은 국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24시간 무

인 대출반납 서비스를 구축하는 신개념 도서관이다.

서비스는 익산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책이름 회원증을 소지한 전라북도 도민들도 소정의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국회 등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U-도서관에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인기도서를 중심으로

5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신간도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최신 도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U-라시아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이자 철도 교통의 중심인 KTX 익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들과 익산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돼 많은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중문천 준설사업 현장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최근 춘포면 삼포리, 덕실리, 오산리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중문천 준설사업 현장 방문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춘포면 천서리, 오산리 일대는 중문 배수로 수조 및 토사 퇴적으로 인한 고질적인 침수침수지역으로 해마다 적잖은 침수피해가 발생해 현재 중문 배수로 준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행정은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차상철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관계자는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2.50km 구간에 대한 토사준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군산대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군산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위탁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자격자 심의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관련 위생·영양·안전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군산시는 지난 2012년 6월 전라북도 내 최초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257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대상별(어린이, 원장, 조리원, 교사,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는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 대해 준회원으로 관리해 식단 및 정보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오숙자 위생행정과장은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 급식소 위생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